



3면

"지방분권시대 전북 대전환 이끌겠다"

전주매일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음 12월 2일) 제390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9일 전북대학교 JBNUN컨벤션센터에서 JC전북지구·전북특별자치도의 초청으로 열린 'K-국정설명회'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산업 테스트베드 육성 의지 재확인

국민권선정부 출범 6개월, 전북대서 국정설명회

도·JC전북지구 등 공동 주최... 김민석 총리 특별 강연
김 총리 "전북, 미래산업 중심지 도약 역량 충분히 갖췐"
전북 경제 대전환 '새만금·피지컬AI·그린바이오' 꼽아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전북대학교 JBNUN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전북을 '미래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권선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도민 500여 명이 참석해 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에서는 JC전북지구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복우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관영 도지사의 환영사 이어 김 총리의 특별 강연과 도민 질의응답 주민참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김 총리는 강연에서 "전북은 농생명, 식품, 에너지 등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발전이 더딘 지역일수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이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

에 있어 '미래산업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언급하며, 신산업을 통한 전북 경제 대전환의 핵심 축으로 △새만금 △피지컬AI △그린바이오 세 분야를 제시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은 이날 설명회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희망고문을 끝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정리하자며 사업 가속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재확인됐으며, 민간주

도에서 공공중심 개발로의 전환이 강조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시범모델 구현 방침도 거듭 언급됐다. 이에 따라 국경과제에 반영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불확실한 사업을 정리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차원에서 새만금 기반계획(MP) 변경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피지컬AI 분야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중요성이 부각됐다.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 본격 추진되며, 전북이 그 중심에 서게 됐다. 도는 과기부 공모 사업인 '협업지능 피지컬AI 전략 Rc'에도 최종 선정돼 국비 219억 원을 추가 확보한 바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지난해 12월 농림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 공모에 전북자치도가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그린바이오의 국가 거점 사업 공모에 전북자치도가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그린바이오의 국가 거점으로 부상했다. 이를 고도화해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전북을 직접 찾아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발전의 방향을 함께 논의해 준 것에 깊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형 통합 노후 보장체계로

민주 이원택 의원, 생활밀착형 노인복지 패키지 공약 발표
도내 경로당 복합 복지 거점 전환·임플란트 지원 확대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획기적인 노인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형 통합 노후 보장체계로 전환을 강조해 주목된다.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일부 시군에 한정적으로 운영 중인 전통활체어 점검·수리 서비스를 광역·기초 지자체 협업을 통해 순회형 서비스로 확대 운영해,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 분야에서는 현행 최대 2개 수준인 임플란트 지원을 4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있으며, 노년기 건강 악화와 개인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원택 의원은 "그동안 단편적·사업별로 흩어져 추진돼 온 노인정책을 이제는 건강·이동·여가를 하나로 묶는 '전북형 통합 노후 보장 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거듭 강조했다.

건강 분야에서는 현행 최대 2개 수준인 임플란트 지원을 4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있으며, 노년기 건강 악화와 개인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여가 정책으로는 파크골프를 전북의 대표 노인 여가·스포츠로 육성하고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36홀 이상 공인 파크골프장 조성 과 14개 시군별 공인 구장 확충 지도사 상시 배치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19일, 이 의원에 따르면 "고령화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전북에서 노인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생존 전략이다"며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는 생활밀착형 노인복지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통령배·도지사기 대회를 개최하고, 장비 무상 대여와 무상 레슨 제공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이전에는 도내 전역 6,954개 모든 경로당을 문화·체육·의료 결합형 스마트·문화 복합 복지 거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의원은 "기존 리모델링 사업이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문턱 미끄럼, 낙상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경로당 문턱 미끄럼 제거, 손잡이·미끄럼 방지 시설 보강, 경로당 안심주거 표준모델 확산을 통해 경로당을 생활 안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로당 규모와 이용 특성에 따라 복합공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스마트기기 교육존을 설치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인다.

지역별로 편차가 큰 급식 지원을 개선해 경로당 주 5일 무상급식과 주 2회 밀반찬 제공을 도내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르신 건강 증진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스크린 스포츠, 디지털 인지 게임 등 어르신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도입·확산한다는 복안이다.

이 의원은 "노인정책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 사회적 고립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며 "공급자 중심 행정을 넘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건강한 노후와 지속 가능한 복지 전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기자

한은 전북본부, 중기 한시 특별지원 6개월 연장

운용기한 7월 말까지... 총 4454억원 규모 유지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 특별지원 제도의 운용기한을 연장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활용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운용기한을 기존 2026년 1월 말에서 2026년 7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원 규모

는 기존과 동일한 4,454억원 한도로 유지된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은 2024년 1월 2,854억원 한도로 시작된 이후 두

차례 기한 연장과 한도 증액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 등 전반적인 경기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의 회복이 더딘 점을 고려해 지원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31일까지 전북 지역 금융기관이 취급한 적격 대출 실적에 대해 총 4,454억원 규모의 지원이 계속 제공될 예정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은행 대출 취급 실적 기준 최대 10억원이다. /오상근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